

〈WTO와 우리농업〉

##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키우자



정명재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 우리농업의 당면과제

지금 우리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는 국제무역기구(WTO)가 추구하고 있는 농업개방문제이다. 우리나라는 WTO회원국이며 그래서 우리는 WTO가 추구하고 있는 “관세없는 자유시장으로의 세계화”의 방향과 질서에 따르고 참여해야한다. 따라서 우리는 WTO협상이 진행되는 몇 년 동안의 기간에 우리농업을 경쟁력이 있는 농업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면 농업의 붕괴를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우리농업을 살리고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게 될 10여년의 기간 안에 우리농산물중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 내야한다.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은 가격과 품질 그리고 마케팅능력에서 나온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경지의 면적이 좁아서 규모화를 바탕으로 하는 가격경쟁력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품질경쟁력과 마케팅능력에 주력해야한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조직경쟁력을 키워 나아가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품질경쟁력의 뒷받침은 과학기술에의 강력한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케팅능력은 조직적인 활동이므로 농민들을 조직화시키고 조직의 힘으로 국제경쟁력을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혁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우리농업의 세계화 대응전략이 실패상과 그 비준과정에서부터 의견이 갈리고 갈등만 남긴 채 장래가 보일만한 비전제시도 없이 넘어가고 있다. 다른 농산물들도 모두 같은 형편이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DDA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당장의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미 UR협상이 시작 될 때부터 예상되었던 것이어서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농업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제시하였었다. 이제 길어야 20년 짧으면 10년 이내에 우리농업도 관세없는 자유시장으로 개방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5년 동안 생산정책은 적극적인 수출장려정책으로 밀어주어 중요한 몇 개의 품목이라도 세계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농정의 기본방향에서 수출정책은 너무 취약하다. 그리고 그 수출농업을 끌고 가야할 경쟁력

강화정책의 방향도 잡혀있지 못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개척을 주도하고 기술농업과 고품질농업을 선도해 나아갈 품목별 협동조직화와 증견 영농인력의 확보대책도 미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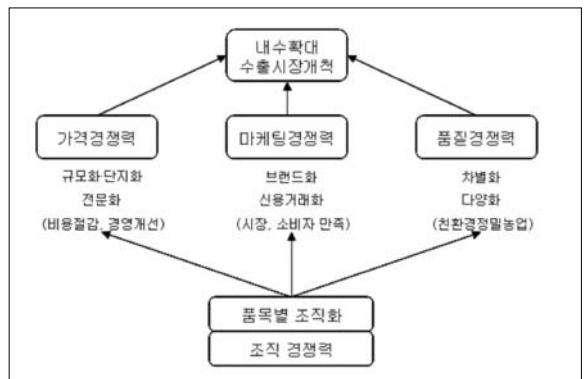
## 2. 4대 경쟁력의 강화방안

우리농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버티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농업의 취약점인 영농 규모의 영세성과 협동이 되지 않는 생산조직의 문제를 뛰어넘기 위한 4대 경쟁력을 추구해야 한다. 경쟁력의 첫 번째인 **가격경쟁력은 영농의 규모화가 관건이다.** 이 문제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최대한의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화의 효과가 큰 벼농사와 곡류, 서류 등은 지역여건에 맞추어 규모화를 추구하되 다른 농사는 대체로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농가들이 규모화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품목별조직화와 집산단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규모가 작아서 **가격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농업이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둘 것이 품질경쟁력이다.** 농산물이나 농산식품의 소비는 최종적으로 품질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농수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기본은 농약이나 제초제 등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에서부터 시작된다. 품질과 맛이 다르고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성을 갖출 수 있다면 경쟁력은 높아진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다.** 품질이 좋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못하면 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품질 좋은 상품을 알리고 인식시키는 홍보마케팅, 신속하고 신선하게 배달해주는 수집배송마케팅능력이 또한 중요

한 경쟁력이 된다. 일정한 농산물이나 농산품의 소비자가 늘어나고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브랜드로서 성립되며 대량소비처나 단골소비자와의 직거래 또는 신용계약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경쟁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인 조직경쟁력이다.** 그것은 위에서 제시한 경쟁력은 농민들이 품목별로 잘 조직화되고 그 조직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강력한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품목별조직의 협동력이 강하면 가격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품질고급화의 기반이 되는 기술수준의 발전과 그 보급도 빠르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조직적으로 해야 효과적이다. 생산의 단지화와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지속적인 공급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내, 외소비조직과의 신용계약거래 등 소위 조직적인 경제활동은 그 힘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경쟁력강화 모형

특히 초고령 사회가 되어버린 우리 농촌에서 노동력이 약한 노령농민들의 경우 협동이 가능한 품목별협동조합으로 조직화 되면 생산 노동까지도 협동으로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던 규모화나 기술농업도 가능해질 수 있다. 농어촌인력의 노령화도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선진 산업국들도

겪고 있는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령농민들이 더 결속력 있는 조직으로 영농할 수 있게 되면 보다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WTO가입 무역국들의 시장이 하나의 시장처럼 개방될 것이고 농업도 모두 개방될 것이므로 이제는 어느 나라의 농민들이 더 결속력 있게 조직화되어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가공하며 거래 하는가에 따라 그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다. 조직의 힘은 곧 경쟁력이며 조직의 활동이 강하면 모든 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된다.

### 3. 품목별협동조직을 통한 조직경쟁력강화

#### 1) 생산자협동조직의 기본요소

조직의 힘은 그 조직이 가진 결속력이며 결속력의 원천은 협동심이다. 협동심을 바탕으로 결속된 조직의 힘은 조직원 각개인의 힘을 합산한 것보다 더 커진다고 한다. 그런데 조직의 힘인 결속력은 조직의 구성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곧 협동심의 기본요소를 갖춘 조직인가? 아닌가? 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조직력의 원천이 되는 협동심은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 기본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그 기본요소 중 **첫 번째는 동질성**이다.

협동이란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움직인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뜻을 같이 하거나, 이해가 같거나 또는 목적과 수단이 동일하거나 무엇이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동질적요소가 있어야한다. 농업에서의 동질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품목의 농사라고 보며 그 다음은 그 중에서도 목적이나 뜻을 같이하는 소위 뺏장이 맞는 사람들, “끼리끼리”를 의미한다.

협동의 **두 번째 요건은 긴밀성**이다. 긴밀성은 서로 자주 만날 수 있는 조건과 관계를 말하며 협력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협동으로 활

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질성이 있더라도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여야만 된다. 서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만나기 어렵고 함께 일하기 어려우면 협동사업이나 조합활동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협동의 **세 번째 요건은 경제성**이다. 협동활동의 결과가 경제적으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적 도움이 못되면 적어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또 다른 이익이라도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품목별 협동조합들이 모두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협동으로 가공하거나 저장하고 농산물이나 가공된 식품과 농가공품을 판매하는 유통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결과 얻어진 이익은 대부분이 모두 조합원들에게 배당되므로 조합원들은 조합을 통해 생산활동 외에 또 하나의 수입원을 가지는 결과가 된다. 품목별협동조합의 활동이 경제적 이익을 많이 주게 되면 그 조합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지고 조직력도 강해져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기업형태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 2) 품목별협동조합의 조직강화

우리나라의 농업협동조합은 지역단위로 묶는 지역조합형태이다. 동질성이라는 것은 같은 지역이라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협동활동이나 협동사업의 가능성이 낮다. 협동이 잘되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돈벌이를 잘해나가는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기초조직을 모두 품목별조합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품목별협동조합도 협동사업과 협동활동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로, 마을단위 또는 읍면단위 수준으로, 만들어져(현재의 농협 작목반수준)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하고 이들의 직거래나 도시소비조합들과의 계약거래 등 유통사업을 중합농협(단위조합)이

맡아주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품목조합들이 규모가 작아 도시소비조합이나 대형의 유통업체 거래가 곤란한 경우는 같은 품목조합끼리 지역별연대나 공동출하방식을 도입하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은 품목별협동조합으로의 조직재편을 위해서는 현재의 면단위 협동조합은 군단위조합수준으로 통합 되던가 재편되어야 하고 품목조합들은 종합농협인 군단위조합 산하의 회원조합으로 편제되는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품목별협동조직의 필요성은 우리농산물의 수출 시장개척을 위해서도, 그리고 농민들의 생산업 이외의 관련소득활동(가공, 저장, 유통 등)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또한 농업의 국제개방에 대응해 농산물의 다양화와 농산가공품의 다양화, 품질고급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세계시장

으로 진출하려면 가격도 국제가격에 근접 되어야 하지만 우선은 품질이 우수해야 하고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소규모의 다양한 품목별 협동조직방식은 이러한 조건에 매우 적합한 대응방식이라고 본다.

한편 품목별협동조직은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주산물을 원료로 하는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된다.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이 부존자원도 없고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도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특산물이나 주요 농산품을 품목별조직으로 묶어 자본도 공동출연하고 사업도 공동사업으로, 노동까지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품목별협동조합방식이 필요하다.

## 가족농이 우리 농업·농촌을 지킨다

개방화, 정보화시대에 농업, 농촌을 단순한 시장경제 체제속에서의 규모화와 경쟁력만을 강조하는 산업적 측면으로부터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포함해 국토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도농상생을 위한 녹색교류를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특집은 21세기 우리 농민, 농업, 농촌의 새로운 의미와 역할 정립을 통해 새로운 소규모 가족농 위주의 우리 농업,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제46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의 주제를 “가족농이 우리 농업·농촌을 지킨다”로 정했다.

- 편집자주